

지역 소식통

고창 정보화마을, 농촌체험관광

고창군 정보화마을이 '고창 청보리밭 축제'에서 마을 소개와 다양한 농촌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고창 정보화마을은 다음달 14일까지 공음면 학원농원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는 '고창 청보리밭축제'에서 비누꽃만들기 등 체험 활동을 통해 청보리밭을 찾는 가족과 연인들에게 즐거운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청정한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면서 농촌체험관광을 소개하고 있다.

정보화마을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수익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마을사업이다.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은 도시민들의 선호하는 귀농귀촌 일민지로 고창 정보화마을에서는 갯벌체험, 복분자피지체 등 청정 자연을 테마로 하는 다양한 농촌체험을 즐길 수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영농지원 통수식 행사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정동환)는 지난 27일 운영대의원, 지역농업인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안전 영농지원 통수식 행사를 정읍시 내장동소재 내장저수지에서 개최했다.

정동환 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농촌 여건에서도 묵묵히 우리민족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는 농업인들에게 감사드리며,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어려운 시기이나 모두 합심하여 더욱더 나은 물 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에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농소동 한마음 체육대회 '성황'

농소동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가 지난 29일 정읍여자중학교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농소동 체육회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는 김생기 시장을 비롯한 지역구 도의원과 시의원, 출향인 기관·단체장, 지역 주민 등 모두 1000여명이 참석했다.

농소동 난타팀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 2부에서는 민속댄스와 트로트 가수의 공연이 펼쳐졌고, 특히 28개 마을의 동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줄다리기 등 3개 종목에 걸친 민속경기와 노래자랑, 장기자랑 등이 진행돼 화합 한마당의 장을 연출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화합·단합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립중앙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화 지원사업 선정

13일 '봄바람 따라 떠나는 詩詩한 문학 산책' 문학기행 마련

정읍시립중앙도서관이 국립 중앙도서관에서 주관하는 2017년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중 독서 문화기행 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5월 13일 발달 장애인 20명과 함께 '봄바람 따라 떠나는 詩詩한 문학 산책'이라는 주제로 문학기행을 떠난다.

이 프로그램은 시를 읽고 그 배경이 된 지역을 직접 돌아보며 시의 감성을 공감하고 장애인들의 문학적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시립중앙도서관은 미당 서정주의 고향인 고창을 둘러볼 예정이다.

시인의 시집 '선운사 동백꽃 보러 갔더니'를 주제로 삼아, 미당 시문학관과 서정주 생가, 선운사 학원농장 청보리밭 등을 방문하여 시인의 삶과 시의 언어 너머에 존재하는 생생한 풍경들을 돌아볼 계획이다.

한편 시립중앙도서관은 또 이에 앞서 사전 강연(5월 11일)을 통해 시의 아름다움과 시가 가진 힘, 나아가 문학이 줄 수 있는 삶의 변화 등에 대



가 장애인들의 활동을 일대일로 도울 자원 활동가 20명이 필요하다"며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1365 자원봉사포털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립중앙도서관은 또 이에 앞서 사전 강연(5월 11일)을 통해 시의 아름다움과 시가 가진 힘, 나아가 문학이 줄 수 있는 삶의 변화 등에 대

해서도 진행한 예정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문학을 통해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삶에 대한 의지를 다시 다짐은 물론 시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함으로써 발달 장애인들의 문학적 사고를 자극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전통시장, 봄내음 쇼핑관광 축제 개최

6일까지 먹거리·즐거거리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고창전통시장에서 '봄 내음 쇼핑관광 축제'가 지난 28일부터 5월 6일까지 개최되어 각종 먹거리, 즐거거리를 선보인다.

이번 축제는 중소기업청이 떠나요~봄 여행, 즐겨요~봄 시장 이란 슬로건으로 봄 여행 주간과 연계해 고창전통시장 상인회와 고창전통시장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단이 함께 추진하는 행사다.

축제기간 동안 고창을 방문하는 관

객을 대상으로 고창음성 입장권을 가지고 고창전통시장을 방문하면 전통시장 상품권(5,000원)을 지급하는 프로그램과 고창전통시장 점포별 대표 상품을 10%~30% 할인해주는 인기상품 할인전 등의 주요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어 눈길을 끈다.

또한, 장어 한상, 복분자 호떡 등 고창을 대표하는 먹거리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부스를 비롯해 관광객이 집중 될 것으로 예상되는 5월

3일과 5월 5일에는 인형 만들기, 팔찌 만들기 등 4종의 체험행사도 진행한 예정이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청에서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4월 29일/5월 5일/5월 6일/5월 13일 총 4회 진행되는 '로보킴플리 스탬프 투어 이벤트'('시장' 페이스북에 로보킴플리 포토카드에 도장을 찍어 인증샷 올리면 총 250명에게 대형TV, 스마트폰 등 경품추첨) 등이 있다.

관련정보는 행사전용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경찰, 대형사고 예방 위한 전세버스 음주측정·안전교육

정읍경찰서(서장 김종화)에서는 지난 28일 관내 정읍동초등학교 현장체합습 학생수송차량 전세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음주측정 및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정읍경찰은 이날 현장에서 버스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버스 출발하기

전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과속 신호위반 줄임이 올때는 잠깐 쉬었다 갈 것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을 당부하고, 승차한 학생 및 교사 200여명의 안전띠 착용을 전세버스 안전점검 체크 리스트를 활용하여 일일이 점검하며 교통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였다.

김용선 경비교통과장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학생 수송차량뿐만 아니라 모든 운전자에게에 대해 수시로 음주단속을 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발생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변산반도 국립공원 50주년 기념 '국립공원 힐링로드' 걷기대회 20일 개최

국립공원 3050 주년을 맞아 오는 5월 20일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병제)는 격포 체석강일원과 함께 명사(조홍섭 환경전문가)와 함께 하는 "국립공원 힐링로드" 걷기대회가 개최된다.

국립공원 지정 50주년 공단 설립 30주년을 기념하고 국립공원의 자연을 오롯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걷기대회는 논설위원이자 환경전문가인 조홍섭씨를 명

사로 초청하여 체석강 ~ 적벽강 해안의 경이로운 지형·지질을 탐방하고 사진촬영 및 인화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탐방시설과장 윤지호)는 "환연한 봄을 맞아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변산반도 국립공원에 방문하여 천혜의 경관을 감상하고,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며 자연을 만끽하는 시간을 갖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부안군 고품질 오디 첫 수확 소비자 공급

청정 해풍을 머금고 자란 고품질 오디가 첫 수확되어 맛을 보게 됐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는 천 환경 오디를 생산하려고 지원된 시설 하우스에서 노지보다 20일 이상 앞당겨 수확한 오디를 소비자에게 첫 선을 보이게 된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병 재배연구팀에 따르면 오디는 부안의 대표 작목으로 전국재배 면적의 28%를 차지 전국 최대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1,800여 톤의 오디를 생산하여 최고의 맛과 품질로 전국의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오디에는 필수 아미노산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칼슘, 칼륨, 비타민 C, 철분이 풍부하고 항산화 색소가 많아 노화 억제, 귀와 눈을 맑게 하는 등 다양한 효능을 함유하고 있으며 그 효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기능성 건강식품으로 개발하려고 현재 부안군은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을 전북대병원 임상시험센터, 생물산업진흥원 등과 연계하여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을 추진 하고 있다.

부안군은 첫 수확을 기점으로 오디의 기능성을 대중에게 홍보와 안방에서도 부안 오디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흡소광에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안=이옥수기자

부안 오복마실 축제, 4일부터 6일까지

축복의 고창, 부안에서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간 펼쳐지는 부안 오복 마실 축제는 "국민의 행복 마실, 국민의 오복 마실"을 슬로건으로 5개 분야 총 47개 프로그램으로 거리형 축제가 펼쳐진다.

축제 중 부안군과 자매결연한 안산시와 광명시가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민간교류 확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발전을 하려고 문화예술단체를

초청하여 그 지역의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웃사촌 공연 한마당을 남녘노소, 관광객과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장으로 메인무대인 풍복이 마당에서 공연을 가진다.

가정의 달 5월, 황금연휴 파스한 봄날에 부안 오복 마실 축제장에서 가족과 친구와 함께 마음의 행복을 들뜬 마음으로 즐기길 바란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군**  
GOCHANG COUNTY

한국인의 본향 고창, 도깨비가 사랑한 청보리밭!

# 제14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

2017. 4.22(토) ~ 5.14(일) 23일간  
전북 고창군 공음면 학원관광농장 일원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